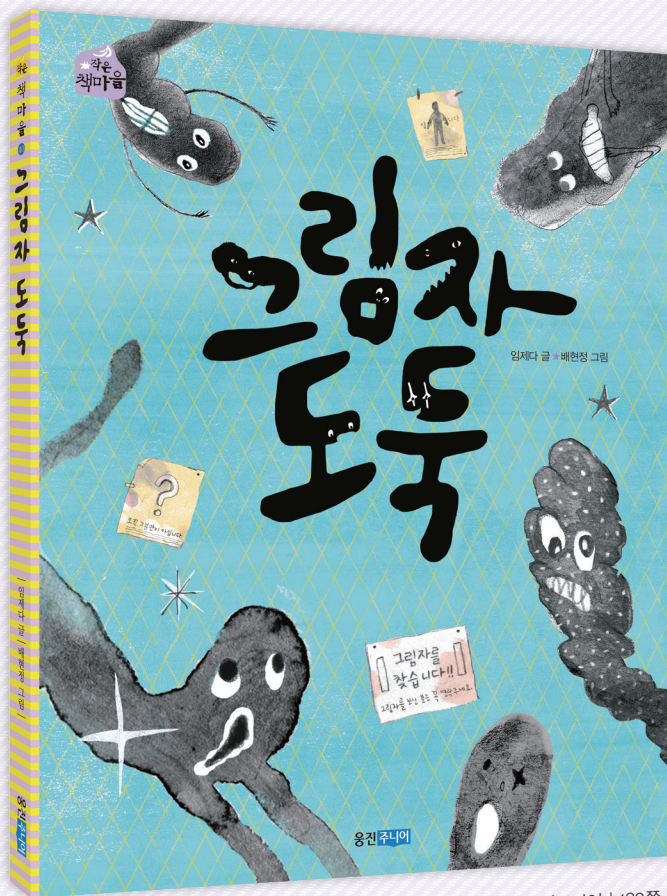


독서수업
지도안
학생용

초등학교 4학년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임제다 글 | 배현정 그림 | 웅진주니어 | 120쪽

독서수업 주안점

-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 기르기
-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 기르기
- 자신의 읽기 습관을 점검하며 스스로 작품을 찾아 읽는 태도 기르기
-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 기르기

표지 탐색하기

이름 :

💡 〈그림자 도둑〉을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책 제목 ‘그림자 도둑’을 보고, 떠올린 생각은 무엇인가요?

⇒

2) 앞표지에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

3) 책 뒷표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같이 놀자 밤새도록 / 노래하자 시끄럽게
밤은 길고 어두워라 / 숨기에는 그만이지
어둠만이 가득하니 / 마음대로 놀아 보자
밤 10시, 수상한 노랫소리가 들려오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하나둘 그림자를 도둑맞게 되는데…….
아이들의 그림자를 훔쳐 간 도둑은 누구일까?

①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그림자를 도둑맞기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나나요?

⇒

②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나요?

⇒

어휘력 쑥쑥 키우기(1)

이름 :

💡 〈그림자 도둑〉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 (가) · 그림자 도둑 이야기가 널리 퍼지면서, 각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자기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 “모두가 신경 쇠약에 걸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쳐 가고 있습니다. 오직 저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 그림자들은 ‘우우!’ 야유를 퍼붓고는 계속해서 저마다 꿈을 이야기했다.
- “그림자 장군, 그림자 장군.” / 대호는 조그맣게 그 기분 좋은 말을 되뇌었다.
- (나) 대호는 그리 좋지 않은 머리를 열심히 ㉠굴렀다.

1) (가)의 밑줄 친 낱말에 알맞은 뜻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쓰시오.

- ① 어떤 분야를 대표할 만하다.
- ② 같은 말을 되풀이하여 말하다.
- ③ 남을 빈정거려 놀림. 또는 그런 말이나 몸짓.
- ④ 어떤 사실이나 사물, 내용 따위를 여러 사람에게 터놓는 것.
- ⑤ 신경이 계속 자극을 받아서 피로가 쌓여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

- | | | |
|-----------|----------|-----------|
| · 내로라하다 : | · 공개적 : | · 신경 쇠약 : |
| · 야유 : | · 되뇌이다 : | |

2) (나)의 ㉠이 지닌 뜻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 ① 차를 가지고 부리어 쓰다.
- ② 바퀴처럼 돌면서 옮겨 가게 하다.
- ③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생각을 이리저리 하다.
- ④ 물건을 잘 간수하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내버려 두다.

⇒

어휘력 쑥쑥 키우기(2)

이름 :

💡 다음은 〈그림자 도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가) · 대호와 호기 그리고 그림자들도 상아 그림자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 쥐도 새도 모르게 아이들의 그림자를 훔쳐 가는 그림자 도둑을 잡겠다니!
 · “이호기를 봐. 저게 진짜 즐겁게 노는 거야. 그림자랑 같이 하늘을 날고 있잖아.”
 대호 말에 그림자들이 호기를 바라보았다. 호기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 (나) “넌 그림자가 없어. 그림자 없이는 우릴 따라올 수도, 이길 수도 없어!”
 대호는 씩 웃었다.
 “그림자가 없다고 누가 그래? 여기 이 그림자 안 보여?”
 대호가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1) 다음 뜻을 지닌 표현을 (가)에서 찾아 그 기본형으로 쓰시오.

① 남의 이야기나 의견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를 모으다.

⇒

② 뽐내고 싶은 기분이나 땃땃하고 자랑스러운
기분이 되다.

⇒

③ 감쪽같이 행동하거나 처리하여 아무도 그
경위나 행방을 모르게.

⇒

2) 다음 뜻에 해당하는 낱말을 (나)에서 찾아 그 기본형으로 쓰시오.

뜻한 바를 이루어 만족한 마음이 얼굴에 나타난 상태이다.

⇒

사라진 것의 정체

이름 :

💡 다음 〈그림자 도둑〉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호기가 씹씹하게 소리치며 상아 곁으로 갔다. 호기는 바닥에 바짝 엎드려 상아의 발밑을 관찰하고 일어섰다.

“야, 울지 마라, 네 그림자 심심해서 놀러 갔나 보다.” /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호기를 바라보았다. 상아도 울음을 그치고 슬며시 고개를 들었다.

“너는 날마다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또 학원, 학원, 그러니까 네 그림자가 얼마나 심심했겠냐? 개 놀러 간 거야.”

“놀러…… 간 거야?” / 상아가 훌쩍이며 물었다.

(나) 그다음 날, 또 다른 남자아이의 그림자가 사라졌고, 그다음에는 또 여자아이의 그림자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하나같이 공부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인기 많은 아이들이었다. 학교를 결석하는 아이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학교 앞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 1) 다음은 (가)~(나)에 드러난 중심 사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아이들의 □□□가 사라지고 있다.

⇒

- 2) 자신이 (가)의 ‘상아’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호기’의 말을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쓰시오.

⇒

- 3) 사건을 겪게 된 아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나)를 참고하여 쓰시오.

⇒ •

•

•

사건의 실마리를 찾다!

이름 :

💡 다음 〈그림자 도둑〉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엄마는 그동안 조금 안심하고 있었다. 대호는 공부도 못하고 썩 모범적인 아이도 아니다. 그러니 그림자 도둑이 대호 그림자를 훔쳐 가는 일은 없을 터였다. 그런데 도둑은 그런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호 그림자를 훔쳐 갔다.

(나) “그러니까 우리 애 말이, 사실은 대호가 아픈 게 아니라 그림자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 못 움직이는 거래요.” / “어머나, 어머나!” / “그림자 없는 애들 놀리고 그랬잖아요. 어제 뉴스에서도 봐요.” / “그래요, 맞아! 공부 잘하고 착한 애들만 골라서.”

㉠ “착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 학교에 못 나오게 하려고 그림자를 훔친 거래요!”

(다) “야, 신발이 물에 젖었잖아. 이걸 어떻게 신어?”

“여기는 처음으로 그림자를 도둑맞은 상아네 집.” / 다음 네모를 가리키며 대호가 말했다. 그리고 그다음 네모들을 차례로 가리켰다. / “그다음이 현이네 집, 다음은 원준이네 집, 기석이네 집, 슬기네 집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집.”

1) ‘대호’가 그림자 도둑을 두고 ‘멍청한 그림자 도둑’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지 (가)를 참고하여 쓰시오.

⇒

2) ㉠과 같은 말을 들었을 때, ‘대호’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대호’의 처지에 공감하며 쓰시오.

⇒

3) (다)에서 ‘대호’가 찾아 낸 실마리는 무엇인지 쓰시오.

⇒

사건을 해결하려는 대호

이름:

💡 다음 〈그림자 도둑〉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대호는 곧장 너른 아파트로 향했다. 오늘 그림자 도둑이 노리는 것은 정훈이의 그림자가 분명했다. 정훈이는 공부도 잘할 뿐 아니라 운동도 무척 잘한다. 그래서 남자아이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많았다.

(나) 호기는 열심히 망토를 펼럭거리며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뛰어가는 호기 뒤를 호기의 그림자가 뒤따르고 있었다.

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진짜 이상한 녀석……. 어어? 잠깐, 혹시 어젯밤에……?”

어젯밤 모퉁이 너머로 사라지던 옷자락이 떠올랐다. 다시 생각해 보니 분명히 망토 자락인 것 같았다. 그리고 보니 호기는 항상 그림자들이 놀러 간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 “저 녀석이 도둑인 거야! 자기가 훔쳐 놓고 아닌 척하려고 그런 소리를 한 거야!” / 대호는 소리쳤다.



1) (가)와 다음 그림으로 보아, ‘대호’가 ‘정훈’이의 집으로 향한 이유는 무엇인지 쓰시오.

⇒

2) (나)에서 ‘대호’는 누가 그림자 도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쓰시오.

⇒

밝혀진 도둑의 정체

이름 :

💡 다음 〈그림자 도둑〉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림자들이 쭈쭈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다. 대호는 그림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만일 정말로 도둑이 없는 거라면, 그러면…….

“그럼, 너희는 왜……, 왜 갑자기 사라진 거야?”

“심심해서!” / “놀고 싶어서!” / “학원 가기 싫다고!”

그림자들이 소리쳤다. 이호기가 한 말이 사실이었다.

(나) “내, 내 그림자는? 내 그림자는 심심할 리가 없어!”

그러자 덩치 큰 그림자가 몸을 쭉 내밀었다.

“난 그동안 너 때문에 너무 많은 그림자를 때려 왔어. 그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야.” / “대호 그림자 불쌍해!”

“대호 그림자는 정말 착해! 우리를 보살펴 줬어!”

1) (가)의 상황으로 보아, 결국 그림자 도둑의 정체는 누구였는지 쓰시오.

⇒

2) (가)에서 그림자들이 사라진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쓰시오.

⇒

3) (나)의 상황으로 보아, ‘대호’의 그림자가 사라진 이유는 무엇인지 쓰시오.

⇒

다시 돌아온 그림자들

이름 :

💡 다음 〈그림자 도둑〉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차피 우리는 돌아가도 호기처럼 놀지 못하는 걸.”

“우리가 가면 다시 공부공부공부라고!” / 그림자들이 투덜거렸다.

“내가 말할게, 너희 생각을 어른들한테 내가 말해 줄게!”

(나) 차 한 대가 교문 앞에서 멈추었다. 현이가 차에서 내렸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현이 아빠였다. 아빠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는 현이는 우등상을 받았을 때보다 더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현이는 대호를 보고는 싱긋 웃어 주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다) “대호야! 오늘 학교 마치고 야구 할 건데 너도 같이 하자!”

정훈이었다. 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 “그럼 나중에 봐!”

정훈이는 경쾌하게 인사하고는 앞에 가던 준우에게 달려가 어깨에 팔을 돌렸다.

1) (가)에서 그림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대호’가 제안한 방법은 무엇인지 쓰시오.

⇒

2) 그림자를 다시 되찾은 아이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는지 (나)~(다)를 참고하여 쓰시오.

⇒

사고력/표현력 쑥쑥 키우기

이름 :

💡 다음 〈그림자 도둑〉에 제시된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1) 옆의 그림은 어떤 장면인가요?

⇒

2) 옆의 그림에서 그림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나요?

⇒

3) 옆의 그림처럼 자신의 그림자도 없어진다면 어떤 마음이 들지 자유롭게 써 보시오.

⇒

4) 위의 그림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과 그림자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고 다음 빈칸에 그림으로 표현해 보시오.





정답과 해설

3쪽	1) (예시답안) 누가 그림자를 가져간 것인지 궁금했다. / 그림자를 왜 도둑맞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등 2) 제목을 둘러싼 부분에 그림자들이 그려져 있고, 그림자를 찾는 전단지들이 그려져 있다. 3) ① 밤 10시에 수상한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②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그림자를 도둑맞고, 도둑맞은 그림자를 찾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다.
4쪽	1) • 내로라하다 : ① • 공개적 : ④ • 신경 쇠약 : ⑤ • 야유 : ③ • 되뇌이다 : ② 2) ③
5쪽	1) ① : 귀를 기울이다, ② : 어깨를(가) 으쓱하다(거리다), ③ : 쥐도 새도 모르게 2) 의기양양하다
6쪽	1) 그림자 2) (예시답안) 내가 '상아'처럼 나의 그림자가 없어졌다면 무섭고 두려웠을 것 같은데 '호기'가 건넌 위로의 말을 듣게 된다면 조금은 안도의 마음이 들었을 것 같다. 3) • 공부를 잘한다. •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다. • 인기가 많다.
7쪽	1) 공부도 못하고 모범적이지도 않는 자신의 그림자를 훔쳐 갔기 때문이다. 2) (예시답안) 자신이 아이들의 그림자를 훔치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써서 억울하고 속상했을 것 같다. 3) 학교에서부터 가까운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순서대로 그림자가 없어졌다.
8쪽	1) 그림자 도둑을 잡기 위해서이다. 2) 호기
9쪽	1) 그림자들 자신이었다. 2) 학원 가기도 싫고 놀고 싶어서였다. 3) '대호' 때문에 그동안 많은 그림자들을 때려 온 것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0쪽	1) 어른들에게 그림자들의 생각을 대신 말해 준다. 2) (예시답안) '상아'나 '정훈'이 모두 공부 외에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해하고 있다.
11쪽	(예시답안) 1) 그림자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2) 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고 즐거웠을 것 같다. 3) 내 그림자도 옆의 그림자들처럼 놀고 싶어서 없어진다면 소름 끼치고 무서울 것 같다. 4) 생각 (이끌기 :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그리도록 합니다.)

웅진주니어

값9,000원



9 788901 162874
ISBN 978-89-01-16287-4
ISBN 978-89-01-05987-7(세트)



KC 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주의

책 모서리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